

해월신사의 생애와 업적

……해월신사 탄신 160주년을 맞아……

《상주선도사》 표 영 삼

☞ 머릿말

올해의 3월 21일은 천도교 제2세 교조 신사 해월 최시형(神師, 海月, 崔時亨)께서 태어나신지 160년이 되는 날이다.

해월신사는 대신사 순도 후 도통을 이어받아 35년동안 조선왕조체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을 민중속에 뿌리 내리게 한 위대한 스승이었다. 동학의 종교사상을 시대상황에 알맞도록 재해석하여 종교의식과 교단조직을 체계화시키는 한편 근세사에 빛나는 종교적 사회운동에도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월신사의 성은 월성(月城, 慶州) 최씨요 명은 경상(慶翔)이며 자는 경오(敬悟=官記錄에는 景五)요, 호는 해월(海月)이다. 포덕 16년(乙亥

1875년) 10월 18일에 시형(時亨)이라 이름을 고쳤으며 존칭도 포덕 33년부터 36년까지는 법헌(法軒)이라 했다.

해월신사는 순조(純祖) 27년(丁亥=1827년) 3월 21일(양력 4월 16일)에 경주 동촌 황오리(皇吾里)에서 부친 최종수(崔宗秀·己巳生 1804년 6월 22일~辛丑卒 1841년 10월 15일) 어른과 모친 월성 배씨(月城 裴氏·?~壬辰卒 1832년 4월 22일)부인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손아래로 누이 한분이 있었는데 임익서(林益瑞)어른에게 출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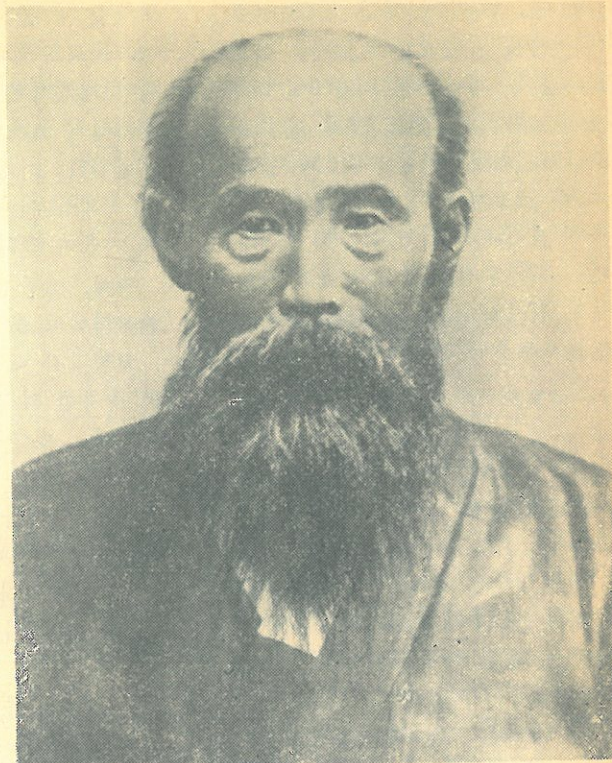
경주 황오리는 출생지(外家)이며 성장하기는 영일군 신평면 터일(基日)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난 해월신사는 6세(1832년)때에 어머니를, 15세(1841년) 때에 아버지를 사별했다. 가세가 넉넉치 못해

일가친척집을 전전하면서 1년을 지내다가 남의 머슴살이도 하였고 17세(1843년)때엔 기계면 오덕동(梧德洞)오도리에 있는 제지소에서 노동을 하였다. 지금도 이곳에는 제지소 자리가 남아 있다.

19세(1845년) 때 홍해에 있는 손씨(密陽孫氏·?~己亥卒 1899년 10월 11일) 부인과 결혼한 후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

28세(1854년)에는 마북(馬北·교사에는 馬伏)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었으며 33세(1859년)에는 다시 검곡(원래는 금등골 琴登谷이었는데 검곡(劍谷)으로 바뀜)으로 들어가 화전민 생활을 했다. 검곡 안쪽 등세기에는 해월신사가 사시던 집터가 아직 남아있다.

가난한 하층 농민이었던 해월신사가 종교가로 전환한 것은 35세(1861년) 때인 포덕 2년 6월이었다. 평소부터 보다 높은 세계를 추구해 오던 해월신사는 소문을 듣고 경주 용담정으로 찾아가 대신사로부터 깨우침을 받자 곧 동학교문에 들어섰던 것



제 2 세 교조 해월신사

이다. 한달에 2~3차씩 직접 대신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수련을 쌓은 결과 이듬해에는 높은 종교적 체험을 거쳐 구도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포덕 3년 가을부터는 동해안 지방에 많은 포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중인의 신망도 날이 갈 수록 높아갔다.

남달리 해월신사를 눈여겨 보아왔던 대신사는 포덕 4년(癸亥年 1863) 7월 23일(양력 9월 5일) 파접(罷接)

하는 날, 북도중 주인(北道中主人)이란 중책을 맡기게 되었다. 그 후 20여일이 지난 8월 14일(9월 26일)에 이르자 도통(道統)마저 전수하여 주었다. 해월신사는 이로써 동학의 제2세 교조가 되어 도의 장래를 한몸에 짊어지게 되었다. 이때의 나이는 37세로서 대신사가 득도했던 나이인 37세와 같았다(의암성사도 해월신사로부터 37세에 도통을 전수 받았다).

☐ 종교 의식(儀式)의 확립

해월신사가 대도의 중임을 물려받는지 4개월 후인 12월 10일(양력 1864년 1월 18일)에 관군에 의해 대신사가 체포되어 이듬해인 포덕 5년(甲子年 1864년) 3월 10일(양력 4월 14일)에 순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도자가 체포되어 유배되는 한편 교도들은 지하로 숨어버려 동학은 자취를 감춰버리다시피 되었다. 해월신사는 안동지방 이무중(李武仲)접주의 주선으로 위기를 모면하여 울진군 죽변(竹邊)지방에 은신하고 있었다.

해월신사가 활동을 재개한 것은 포덕 6년(乙丑年 1865년) 봄부터였다.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첫째 49일간의 기도식을 봉행케 하였고, 둘째 경전을 필사 보급시켰으며, 셋째

교의를 재해석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종교의식과 경전보급 그리고 교의의 재해석은 동학 재건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였다. 동학을 지도한 35년간의 기간에 걸쳐 해월신사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계속 힘을 기울여 왔다.

첫째, 해월신사는 동학의 독특한 종교의식의 틀을 잡아 놓았다.

해월신사 재세시에 세워놓은 동학의 독특한 의식을 살펴 보면 49일 기도제, 청수봉전, 향아설위를 들 수 있다. 49일 기도제는 대신사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해월신사가 포덕 6년에 연중 비차례씩 49일간 기도를 하라고 시달한테서부터 정형화된 것이다. 최근 7일기도, 21일기도, 105일 기도기간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동학 당시의 기도기간은 49일간이었다. 이것은 물론 대신사 스스로가 친성산에 들어가 49일간을 기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 해월신사는 일반 교인의 수련은 물론 스승님 자신이 수도할 때에도 언제나 49일간을 기도기간으로 정하였다. 심지어 구성제(九星祭) 인등제(引燈祭) 등도 49일간의 기도를 상징하는 형식으로 행해졌다. 이 49일간의 기도기간을 제도화시킨 것은 바로 해월신사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청수봉전이다.

청수(淸水)봉전은 대신사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동학 당시의 입도식 순서에도 술·떡·과일·포·육 등의 제수는 보이나 청수를 봉전하라는 귀절은 없다. 해월신사의 기록에서도 포덕 16년(乙亥年 1875년)의 8월초에

“日後는 一切 의식에 但히 淸水 一器 만 用하는 날이 有하리라”(天道敎書)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체 의식에 청수만을 봉전하는 제도는 해월신사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수를 다른 제수와 같이 봉전하여 오던 것을 청수 일기로 대체시킨 것은 해월신사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는 향아설위(向我設位)제례 의식을 정립하였다.

포덕 38년(丁酉年 1897년) 4월 5일 이천군(옛날에는 陰竹郡) 영산동(鸞山洞)에서 창도기념식을 봉행할 때.

“各各 卓을 設하되 奠物은 皆 我를 向하여서 陳함이 可하다”

고 하여 종전 벽을 향해 차려놓았던 향벽설위제를 철폐하고 제수를 나를 향해 차려 놓는 향아설위(向我設位)제례 제도를 만들었다. 제례와 같은 종교의식은 바로 그 종교의 교의와 직결되며 어떤 면에서는 교의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월신사는 대신사의 시천주(侍天主) 신앙에 가장 알맞는 제례의식을 생각한

끝에 71세 되던 포덕 38년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 권병덕 기록에 의하면 이 제례를 행하면서 설법하기를 제수로 차려놓았던 제물은 좌중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만고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다.

☐ 교의의 재해석

두번째로 해월신사는 민중들의 공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의로 재해석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포덕 6년(乙丑年 1865년) 10월 28일에 대신사 순도 후 첫뿔 탄신제례를 행하면서

“人은 乃天이라 故로 人은 平等하여 差別이 없나니 人이 人爲로써 貴賤을 分함은 是 天에 違함이니 吾 道人은 一切 貴賤의 差別을 撤廢하여 先師의 志를 副함으로써 爲主하기를 望하노라”

라고 설법하였다. 이 “人的 乃天”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대신사의 시천주(侍天主)의 인간관을 재해석한 것이다. 즉 시천주란, 한울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셔져 있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울님과 같이 존엄하다는 뜻이다. 결국 한울님이 존엄하다면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똑 같이 한울님처럼 존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울님의 존엄성과 사람의 존엄성이 같다는

뜻에서 인내천(人乃天) 인즉천(人即天), 인시천(人是天)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해월신사는 대신사께서 가르친 시천주(侍天主)를 실체적으로 발전 해석하여 귀천타파·적서타파에 적용했던 것이다.

포덕 8년(丁卯年 1867년) 10월에 해월신사는 흥해에서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말이면 모두 천어(天語)라 해석하고 부녀자나 어린이의 말이라도 지공무사한 말이면 한울님의 말씀이므로 받들고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인도 누구나 성인다운 덕을 행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인간 존엄을 강조하였다.

포덕 12년(辛未年 1871년) 12월에는 영월 직동 박용걸(朴龍傑)어른의 집에서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유명한 설법을 하였다.

“人이 來하거든 人이 來하였다 하지勿하고 한울님이 來하신다 하라”

하시며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 섬기듯이 하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 내칙과 내수도문의 찬제, 삼경(敬天, 敬人, 敬物)사상의 설법 등 대신사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재해석하여 생활에 적용한 예가 많다.

☐ 교단조직과 사회운동

해월신사는 교단조직면에서도 새

로운 제도를 창안하여 조직적인 종교운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대신사 당시의 접조직(接組織)을 살리어 포제(包制)로 발전 시켰으며 육임제(敎長, 敎授, 都執, 執綱, 大正, 中正)의 창설, 차도주제(次道主制)와 오도 편의장제(五道便義長制)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직체제의 정립으로써 내적인 비밀 종교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조신원운동과 사회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동학 본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도주제와 도접주제(都接主制)를 처음 창제한 것은 단양 송두록에서 포덕 16년(1875년) 10월이었다. 당시 강시원(姜時元·姜洙)을 차도주제로, 유시현(劉時憲·劉寅常)을 도접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육임제(六任制)는 포덕 25년(1884년) 10월이었고 포제는 포덕 34년(1893년) 3월이었다. 이 때 포명(包名=忠義包·忠慶包 등)을 정했고 대접주제와 수접주·도접주제도 아울러 만들었다. 편의장제는 포덕 30년(1889년)경부터라고 추측된다. 이 포제와 육임제는 동학의 독특한 교단조직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조직력이 되었다.

해월신사께서 사회적으로 전개한 운동은 주로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교단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교조신원운동이었다. 제1차운동은 포덕 12년(辛未年 1871년) 3월에 경상북도

영해에서 전개했다. 제2차는 포덕 33년(壬辰年 1892년) 10월과 11월에 공주와 전라도 삼례에서 전개하였다. 제1차운동인 신미교조신원(辛未敎祖伸憲運動)은 이필제(李弼濟)의 과격행동으로 병란적(兵亂的) 성격을 띠어 많은 희생자를 내었으며, 제2차 제3차의 공주 및 삼례 교조신원운동은 평화적 시위로써 교세확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제4차는 광화문전에서 있었는데 수 천 동학교도들이 서울에 잠입(표면상 9명의 대표가 정부에 소원했음) 사회여론을 크게 일으켰다.

몇차례에 걸친 교조신원운동이 무위로 돌아가자 해월신사는 보은 장내리에서 대민중시위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반봉건·반제국주의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에서 2만 7천여 동학교도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 그리고 척왜양(斥倭洋)의 구호를 내 걸고 본격적인 보국안민의 사회개혁운동을 위한 기치를 올렸다. 이 때부터 고통받고 있던 민중들은 동학교문에 더욱 모여들게 되었고 어느 지역보다 탐관오리에 시달림을 받던 호남지방에서는 드디어 민란으로 봉기, 동학혁명운동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포덕 35년(1894년) 3월 21일(양 4월 26일) 전라도 백산에서 전봉준 고부접주를 대장으로 추대, 손화중(孫華仲), 김기

범(金箕範:號 開南), 김덕명(金德明·弼商) 대접주가 주동이 되어 일어났다. 그 후 9월에는 해월신사의 명에 따라 일본제국주의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전 동학군이 봉기하여 성전에 나섰다.

이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잠자는 민족에게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민족주체의식을 심어준 찬연한 혁명운동이었다.

☐ 맺는 말

해월신사의 위대한 발자취는 한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해월신사는 동학의 종교적 의식을 확립하였으며 교의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한 탁월한 지도자 일 뿐만 아니라 교의를 실천한 위대한 종교가였다. 해월신사는 이론가가 아니다. 대신사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판단적 체계에 의해 이해하고 재해석한 분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 즉 공감적 체계에서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뛰어난 분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큰 장을 기록한 분으로 역사의식을 일깨워주신 어른이시다. 해월신사의 생생한 역사는 매우 앞서 있었다.

해월신사 탄신 160돐을 맞는 우리 후학들은 다시한번 해월신사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